

# 청소년의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및 다집단 분석\*

성정혜\*\* · 김준경\*\*\*

## I 알기 쉬운 개요

최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현상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의 활용이 급증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사이버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건축물 붕괴, 화재 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이라는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는 과도기적 시기로, 성별에 따라 발달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하다고 지각하였으며, 공격성과 사이버폭력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위축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 간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기의 사이버폭력 감소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2021.11.19.)에서 발표한 논문임

\*\*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시간강사

\*\*\*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교신저자, kckjung@knu.ac.kr

투 고 일 / 2022. 3. 2.

심 사 일 / 2022. 4. 28.

심사완료일 / 2022. 5. 10.

DOI/10.14816/sky.2022.33.2.117

## I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잠재평균분석 및 다집단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공격성, 사이버폭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과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다집단 분석, KCYPS 2018

## 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은 사회활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세대로서, 사이버상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며, SNS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여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쉬우며, 시·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든지 행해질 수 있고,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 죄책감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쉽게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교육부(2021)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과 대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이버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3%로 전년도(8.9%)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별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18.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15.4%, 초등학교 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은 청소년기의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온라인의 활용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대면 사회의 물리적 기능이 사이버공간으로 대체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에서 실시한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일주일 평균 27.6시간이었는데, 이는 전년도(2019년)에 비해 10시간이 증가한 시간이다. 이러한 온라인의 활용은 비대면 시대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지만, 사이버상에서의 지능형 범죄가 심각화되고, 저연령화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Akers(2017)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비행 행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과 하문선(2020)은 사회적인 재난이 아이들의 발달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사이버폭력이라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코로나 19와 건물 붕괴 사고, 화재 사고 등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재난은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 생명의 위협에 직접 노출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Barnes, Treiber & Ludwig, 2005).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되고, 대인관계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 위축감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가장 힘든 점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72%)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힘든 점으로는 '외출 자제로 인해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갑갑함(62.2%)'이라고 답하였다(이기순, 2020). 뿐만 아니라 건축물 붕괴, 산불로 인한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정서적·행동적으로 많은 제약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 등 사회 전반에서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Imran과 Zeshan, Pervaiz(2020)은 청소년들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되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황성현과 이강훈(2017)은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양상은 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행동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초등학생의 경우 이전 발달단계로의 퇴행이나 애착 행동, 공격성 등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 비행과 공격적인 행동, 이유 없는 폭력성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전혜영, 2020.09.10.). 이와 관련하여 Al Majali와 Alghazo(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불안과 우울 그리고 공격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박영숙과 임안나(2017)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공격성을 표출하기 위한 분출구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양윤식과 김수민, 이태현(2019)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과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이 사회적 위축뿐만 아니라 공격성은 사이버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성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 이로 인해 사회환경의 변화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 양성평등과 양성적인 성 역할 행동에 대한 주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성 역할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더욱 높으며(이민지, 정건희, 2020), 사회적으로도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청소년기의 성차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가 높으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비행 행동이 감소하게 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적 유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irschi, 2017).

이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재훈과 이병도(2017)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사건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은영(202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위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조민규와 김춘경, 송현정(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더욱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김경호와 차은진(2012)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사이버폭력에 더 높은 가담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 안전체감도와 공격성, 사이버폭력 수준이 더욱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위축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근 많은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코로나 19나 건축물 붕괴, 화재,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사건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과 함께 고려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성별에 따라 변인 간 관계의 영향력 차이 검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적절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잠재평균분석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집단 분석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차이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2018년(1차년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2,607명과 중학교 1학년 재학생 2,59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2020년(3차년도)까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 중 2020년(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유효응답을 얻어낸 중학교 3학년 2,38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384)

배경변인	구분	빈도(비율 %)	
		남학생	여학생
스마트폰 사용 여부	나의 스마트폰이 있음	1,251(97.9)	1,084(98.0)
	나의 스마트폰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함	11(0.9)	13(1.2)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	16(1.3)	9(0.8)
형제자매 중 본인 순위	첫째	712(55.7)	613(55.4)
	둘째	468(36.6)	423(38.2)
	셋째	88(6.9)	63(5.7)
	넷째 이상	10(0.8)	7(0.4)
거주지역	서울권	191(14.9)	199(18.0)
	경인권	417(32.6)	371(33.6)
	대전/충청/강원권	233(18.2)	146(13.1)
	대구/경북권	113(8.8)	103(9.3)
	부산/울산/경남권	181(14.3)	153(13.9)
	광주/전라/제주권	143(11.2)	134(12.1)
	전체	1,278(100)	1,106(100)

## 2. 측정도구

### 1)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원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자료만 사용하였다. 사회재난은 감염병 유행, 건축물 붕괴, 화재 및 폭발사고,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미세먼지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1점(매우 안전하지 않다)에서 4점(매우 안전하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사회가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사회적 위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원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1로 나타났다.

### 3)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원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8로 나타났다.

### 4) 사이버폭력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승현과 강지현, 이원상(2015)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행위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 없다(1점)', '1년에 1~2번(2점)', '한 달에 1번(3점)',

‘한 달에 2~3번(4점)’, ‘1주일에 1번(5점)’, ‘1주일에 여러 번(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13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의 측정문항을 모두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Hau & Marsh, 2004)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얻기 위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의 측정변수에 대한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를 통해 2개의 지표변수를 설정하였다. 둘째, 잠재변인이 타당화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추정치를 확인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변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의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을 검증하였고, 변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다섯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구조적 관계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LI .996, CFI .998, RMSEA .022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합도 기준을 토대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모수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수백(2009)의 기준에 근거하여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85이하로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존재하며, 요인부하량이 평균 .05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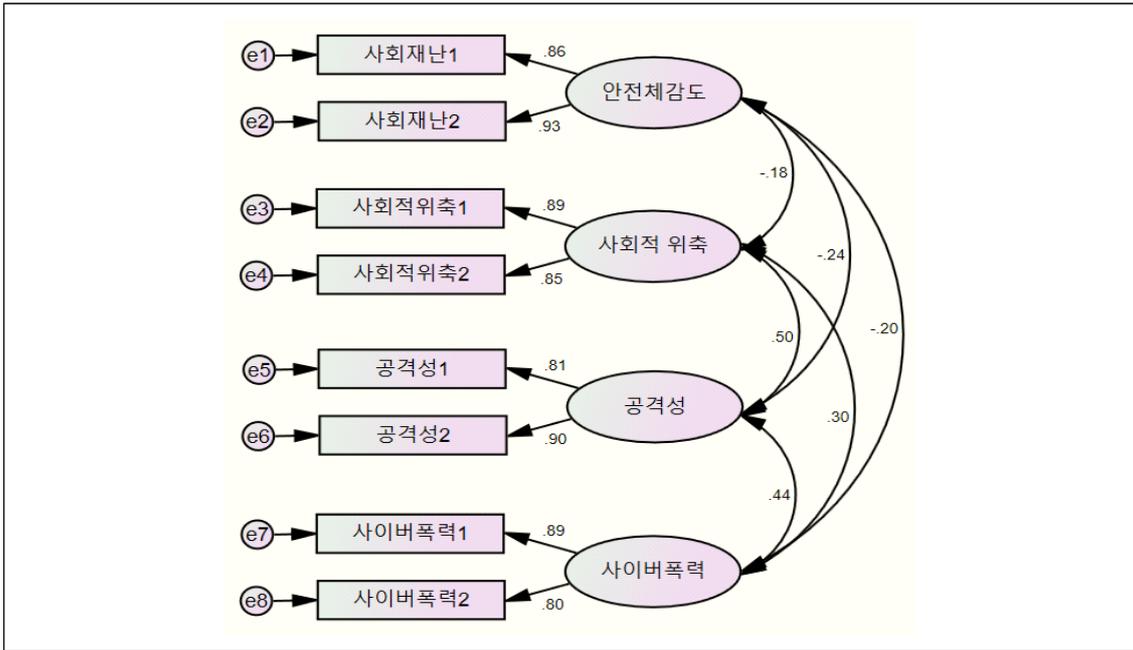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검증 결과

## 2.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각각의 집단에서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행렬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그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는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 사이버폭력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은 사이버폭력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인 간 상호상관행렬

	1	4	7	10
1	1	-.212	-.228	-.225
4	-.114*	1	.432	.279
7	-.212*	.435*	1	.297
10	-.172*	.260*	.414*	1

\* $p < .05$

1.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2. 사회적 위축    3. 공격성    4. 사이버폭력

Note. 대각선 아래는 남학생 집단이며, 위는 여학생 집단임

###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변인 간 동일성 검증을 위해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변수	$\chi^2$	df	TLI	CF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41.512	28	.997	.999	.014
모형2: 측정동일성	53.216	32	.996	.998	.017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204.123	40	.975	.982	.042
모형4: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동일성	244.559	44	.972	.978	.044

먼저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 비행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저모형(모형 1)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2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의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으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모형1과의  $\chi^2$ 값 차이 [ $\Delta\chi^2(df=4)=11.704, p<.05$ ]가 유의하게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기각되지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RMSEA가 모형1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따라서 모형2의 측정동일성 모형은 성립된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어 모형3에서 각 측정변인이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모형2와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chi^2$ 값 차이 [ $\Delta\chi^2(df=8)=150.907, p<.05$ ]가 유의하게 나타나 절편동일성이 기각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모형 3의 절편동일성 모형이 성립된다. 이러한 잠재평균은 Cohen(1988)의 효과크기(d)를 통해서 일반적 측정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제시할 수 있다. d값을 산출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에서 산출된 요인분산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모형4)을 실시한 결과, 모형3과의  $\chi^2$ 값 차이 [ $\Delta\chi^2(df=4)=40.436, p<.05$ ]가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산동일성이 기각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아 모형4의 요인분산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의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표 4  
 각 변수에 대한 청소년의 성별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변수	여학생	남학생	$\rho$	효과크기(d)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0	.133	.000	.409
사회적 위축	0	-.088	.003	.196
공격성	0	.051	.046	.162
사이버폭력	0	.031	.000	.704

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공격성, 사이버폭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잠재평균의 차이는 Cohen의 효과크기(d)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매우 높은 수준의 평균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재난 안전체감도는 중간 정도의 차이를,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낮은 수준의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구조관계

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에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chi^2(df=32)=53.216$ , TLI=.996, CFI=.998, RMSEA=.017),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모수 추정치

변수		남학생		여학생	
		B	$\beta$	B	$\beta$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회적 위축	-.149*	-.130	-.287*	-.236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공격성	-.187*	-.179	-.143*	-.150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이버폭력	-.034*	-.086	-.049*	-.142
사회적 위축	→ 공격성	.430*	.473	.380*	.487
사회적 위축	→ 사이버폭력	.029*	.083	.045*	.158
공격성	→ 사이버폭력	.166*	.429	.087*	.240

\* $p < .05$

그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사이버폭력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공격성과 사이버폭력이 높아지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 분석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6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6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다 [ $\chi^2(df=38)=79.386$ , TLI=.993, CFI=.995, RMSEA=.021].

표 6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델 간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Delta df$	$\Delta \chi^2$	$\Delta TLI$	$\Delta CFI$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회적 위축	1	6.305*	-.001	-.001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공격성	1	1.078	.000	.000
사회재난 안전체감도 → 사이버폭력	1	.735	.000	.000
사회적 위축 → 공격성	1	1.818	.000	.000
사회적 위축 → 사이버폭력	1	.835	.000	.000
공격성 → 사이버폭력	1	14.472*	-.002	-.002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6	26.170	-.003	-.003

\* $p < .05$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경로 [ $\Delta \chi^2(df=1)=6.305$ ,  $p < .05$ ]와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경로 [ $\Delta \chi^2(df=1)=14.472$ ,  $p < .05$ ]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2가지의 경로 모두 표 5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2가지 경로에서의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재훈과 이병도(2017)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더욱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재난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확산시키게 됨으로써 외출의 자제,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 대인관계 철회, 사회적 정체감 붕괴 등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는 특히, 타인지향적인 여학생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기의 경우 또래 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만,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타인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성을 토대로 살펴보면(Rose & Rudolph, 2006), 사회재난의 발생은 사회적인 관계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불안을 유발함으로써 같은 수준의 사회재난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이를 더욱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공격성과 사이버폭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공격성과 사이버폭력의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은옥(2017)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공격성이나 폭력성,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집단이 여자 청소년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배우게 되는데, 남학생들은 공격성이나 비행 등과 같은 거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이를 통해 힘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더욱 폭력적인 행위들을 저지르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폭력성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공격성 수준을 탐색하고, 그 수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한 치료적 접근이나 교육을 통한 예방적 접근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축의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현주(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내면화된 어려움을 더 많이 겪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더욱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 특히 여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친구들의 지지 속에서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사회적 위축은 낮은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주위와 어울리지 못하는 정서적 상태로(Rubin, Coplan & Bowker, 2009), 청소년기 여학생의 관계 지향적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여 자신을 고립시키게 된다. 따라서 여학생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 속에서의 지지가 부족하여 사이버폭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현실 속에서의 대인관계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이나 사회적 위축, 사이버폭력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들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문제행동의 유형과 성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2가지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기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사회적 위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oey와 Coplan, Kingsbury(2014)의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사회불안을 더욱 높게 경험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욱 위축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재난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집단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며,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단절되어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된다.

청소년기는 친구관계를 통해 심리·사회적으로 발달해 나가는데,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가해지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낮아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불확실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높을 수 있으며(이래혁, 2021), 이로 인해 사회활동에 소극적이고 위축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재난의 발생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예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개입 방안이 필요하며, 사회재난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상담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공격성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상준과 양혜정(2020)의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공격성이 사이버불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공격성이 높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분노나 긴장감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폭력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반지윤, 오인수, 2020). 청소년기에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이러한 감정을 처리하고 기능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미성숙하다는 점(Chambers, Taylor & Potenza, 2003)과 사이버 세계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 죄책감이 덜하다는 점으로 인해 자신의 공격적인 본능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온라인을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사이버폭력을 행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공격성 수준에 대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공격성의 수준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공격적 성향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 향상과 이러한 공격성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자신에게 맞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상담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는 사이버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rschi (2017)의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자신의 정서나 행동 등을 사회적인 규범에 맞게 조절하게 되지만, 유대감이 약화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지면서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감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해 대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대면의 성격을 갖는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비대면의 형태를 보이는 사이버상의 범죄들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기수, 2021)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온라인의 활용도가 높아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기의 사이버폭력 감소를 위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최근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과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이 미치는 직접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이버폭력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사회재난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정서·행동적 어려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재난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심각성과 이러한 청소년기의 어려움은 사이버폭력이라는 범죄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재난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여기기보다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사회재난 안전체감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해결 또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단일화된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사이버폭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각 하위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성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권진, 김보람, 2019).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단일 변인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사이버폭력의 하위유형을 분류한 후, 각각의 하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사이버폭력의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체감도와 사이버폭력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회재난에 속하는 코로나 19의 경우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최지욱, 2021)을 고려해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와 관련된 특성들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다면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변화양상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이버폭력의 보호 요인으로써 부모 변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상준, 양혜정 (2020). 청소년의 가족 및 학교 환경 스트레스가 사이버 불링, 온라인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격성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 조절효과 경쟁모델.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395-406. doi:10.21097/ksw.2020.05.15.2.395
- 교육부 (2021).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 교육부.
- 권진, 김보람 (2019).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52, 225-248.
- 김경호, 차은진 (201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2(2), 364-401.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 하문선 (2020). 청소년기 부모학대 경험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8(1), 97-133.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영숙, 임안나 (2017). 공격성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을 매개효과로. **교정복지연구**, 50, 57-86.
- 반지윤, 오인수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31(1), 129-156. doi:10.14816/sky.2020.31.1.129
- 양윤식, 김수민, 이태현 (2019). 긴장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정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0(2), 5-31. doi:10.14816/sky.2019. 30.25
- 유현주 (2014).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및 휴대전화 의존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2), 417-446.
- 이기수 (2021). 코로나19 시기 범죄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23(1), 167-187.
- 이기순 (2020).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청소년, 보호자 체감도 조사 및 대응방안**. 서울: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래혁 (2021).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6), 71-80.
- 이민지, 정건희 (2020).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 분석.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5), 329-337. doi:10.9798/KOSHAM.2020.20.5.329

-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총서**, 1-481.
- 장은옥 (2017). 청소년의 성별, 학년 및 스트레스 관련 요인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 **교과교육연구**, 38(1), 57-76.
- 전혜영 (2020.09.10.).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도 '코로나 블루' 겪는다? 헬스조선 뉴스. <http://m/health/chosun/com>. 2021.08.17. 인출.
- 정재훈, 이병도 (2017). 체감안전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9(1), 121-148.
-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중학생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6(2), 29-54.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최은영 (2020).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스마트폰 의존도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5), 433-459. doi:10.21509/KJYS.2020.05.27.5.433
- 최지욱 (2021). 코로나 19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0(1), 2-10. doi:10.4306/jknpa.2021.60.0.2
- 황성현, 이강훈 (2017).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의 심리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4(1), 157-175. doi:10.46415/jss.2017.03.24.1.157
- Akers, R. L. (2017).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Al Majali, S. A., & Alghazo, E. M. (2021). Mental health of individuals who are deaf during COVID-19: Depression, anxiety, aggression, and fear.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21, 1-10. doi:10.1002/jcop.22539
- Barnes, V. A., Treiber, F. A., & Ludwig, D. A. (2005). African-American adolescents' stress responses after the 9/11/01 terrorist attack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6(3), 201-207. doi:10.1016/j.jadohealth.2004.02.035
- Chambers, R. A., Taylor, J. R., & Potenza, M. N. (2003). Developmental neurocircuitry of motivation in adolescence: a critical period of addiction vulnerabi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6), 1041-1052. doi:10.1176/appi.ajp.160.6.1041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 Doey, L., Coplan, R. J., & Kingsbury, M. (2014). Bashful boys and coy girls: A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 childhood shyness. *Sex Roles, 70*(7-8), 255-266.
- Hau, K. T., & Marsh, H. W. (2004). The use of item parcel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Non-normal data and small sample siz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57*(2), 327-351. doi:10.1111/j.2044-8317.2004.tb00142.x
- Hirschi, T. (2017). On the compatibility of rational choice and social control theories of crime. In Clarke, R. V. (Eds.), *The reasoning criminal* (pp. 105-118). London: Routledge.
- Imran, N., Zeshan, M., & Pervaiz, Z. (2020). Mental health considerations for children & adolescents in COVID-19 Pandemic. *Pakist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 36*, 67-72. doi:10.12669/pjms.36.COVID19-S4. 2759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ABSTRACT

### A structural analysis among adolescent's sensitivity towards safety in the context of social disaster,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and cyber-violence

Sung, Junghye\* · Kim, Choon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sensitivity of safety about social disaster,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affect cyber-violence and how these variables are related to the gender of adolescen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sensitivity towards safety in regards to social disaster,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and cyber-violence ha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adolescent's gender. Second, the influence of sensitivity towards safety in terms of social disaster and social withdrawal showed differences depending on adolescent's gender. Additionally, the influence of aggression and cyber-violence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adolescent's gender.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and conduct counselling and other programs designed to prevent and reduce the problem of cyber-violence among adolescents.

**Key words:** sensitivity of safety about social disaster,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cyber-violence, multi-group analysis

---

\* Part-time instructor, School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